

ICCAT 패널1 회기간 회의(4차) 참석 결과

□ 개요

- (일시/장소) '23.10.23(월) 17:00~01:00 / 화상회의
- (참석자) 23개 체약당사자, 3개 비체약당사자, 9개 NGO 등 약 130명
- (주요내용) 눈다랑어 TAC, 어획 할당, 감시·감독·통제 조치 등

□ 주요내용

1. 눈다랑어 총허용어획량(TAC)

- 논의내용
 - 서아프리카, 일본, EU, 중미는 눈다랑어 TAC 7.3만톤을 지지하였고, 의장은 7.3만톤에 합의가 형성되고 있는 듯하다고 언급
 - 영국은 7.3만톤을 지지하지 않는 CPC들(미, 영, 캐)도 있음을 언급

2. 눈다랑어 어획 할당

- 서아프리카 제안서
 - 일본은 TAC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국 어획한도가 감소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음을 언급
 - 한국은 19-02에서 한국이 자발적으로 가장 많은 어획한도 감축율을 적용한 점이 고려되어야 함을 언급
 - 중국은 할당 산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고, 할당의 토대가 되는 시작점은 16-01 어획한도가 되어야 함을 언급
 - 영국은 300톤은 어업개발을 하기에 너무 적은 수치임을 언급

○ 일본 · 남아공 · 브라질 제안서

- EU는 ①CPC별 어획한도 이월 비율을 상이하게 적용하는 것에 반대하고, ②전배는 동일 그룹 내 또는 하위 그룹으로 하는 전배만 허용되어야 하고, ③영세 어업을 위한 할당분을 두어야 함을 주장
- 과테말라는 ①큰 수확국에서 작은 수확국으로 할당이 이전되어야 하고, ②TAC 증가 상황에서 추가적인 FAD 규제 도입은 수용 불가하고, ③조업계획 제출 기준을 500톤으로 하는 것은 소규모 수확국들의 어업개발권을 저해할 수 있음을 언급
- 한국은 ①한국의 어획한도가 매우 적으므로 동일 그룹 내 어획한도가 큰 다른 CPC들과는 상이한 감축율이 적용되어야 하고, ②TAC 증가 상황에서 어획한도 감축을 제안받고 있으므로 전배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도입은 수용 불가함을 언급
- 중국은 일본, 중국, 대만, 한국을 동일 그룹으로 분류한 근거를 질문하고, 중국은 개발된 국가가 아니며, 근거가 '원양조업국'이라면 다른 그룹에 속한 원양조업국도 있음을 언급
- 미국은 ①생분해성 FAD 사용을 의무화, ②기니만에 지역오퍼버프로 그램(ROP) 부활, ③치어 보호를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함을 언급

○ EU 제안서

- 남아공은 ①소규모 수확국들에게 능력(선박 척수) 제한을 도입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, ②영세 어업을 위한 할당분은 CPC가 국내적으로 마련해야 함을 주장
- 일본은 CPC들의 능력증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, 능력이 할당에 상응해야 함을 언급하고 EU도 이에 동의
- EU는 능력 제한을 두지 않으면 TAC 감축 상황에서 어획한도 있는 CPC들만 계속해서 책임져야 하는 구조가 됨을 언급

3. 기타 논의

○ 기타 조치

- 의장은 추가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FAD 등 기타 조치를 논의할 것을 언급
- 과테말라는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의장 개인 의견이고, 의장이 특정 방향으로 논의를 유도해서는 안됨을 언급
- 일본은 과학위가 FAD 투망 횡수 제한에 관한 권고를 제공하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하였으므로, 잠정적으로 CPC별 '20~'22년의 90% 수준으로 FAD 투망 횡수 제한을 제안
- 미국은 ①과거에 이행 어려움으로 폐지되었던 눈다랑어, 황다랑어를 위한 최소크기 제한을 재도입하는 것이 필요하고, ②IMM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혼획 선박을 조업선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
- 과테말라는 ①모든 제안은 서면으로 데이터와 함께 제시되어야 함을 언급하고, ②모든 선박에 옵서버 승선율을 100%로 해야 함을 주장
- 일본은 이미 합의된 승선율 10%를 모두가 이행하기 전까지 승선율 추가 상향 논의는 불가함을 언급

○ 향후 절차

- 한국은 제안국들이 연례회의에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면, 제안서 버전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, 연례회의까지 작업 계획을 의장에게 질문
- CPC들은 연례회의에 4개 제안서가 제출되어 각 제안서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논의하는 것은 피해야 하는 상황임에 공감
- 의장은 제안서 제출 기한(11.5)까지 CPC들이 협의하여 가능한 한 1개 제안서가 제출되는 것이 바람직함을 언급

□ 관찰 및 평가

- 급격한 현상변경이 아닌 점진적인 할당 증가만이 현실적인 합의점
 - 일본은 '21년 연례회의에서 TAC 증가분(6.15만톤 → 7만톤)을 모두 연안개도국들에게 할당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나, 연안개도국들의 요구에 미치지 못해 거부되었음. 그후 모두를 만족시키는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19-02 조치가 계속 연장되어 왔음
 - 만약 연안개도국들이 '21년 일본 제안을 수용했다라면 어떠했을까? 현재 19-02에서의 할당보다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?
 - 비연안개도국(EU, 일본, 중국, 대만, 한국 등) 대표자들도 대서양 참치어업으로 생계를 영위하고 있는 자국 어민들을 대표하고 있으므로, 현재 상태에서 급격하게 불리해지는 변경에 합의하는 것은 어려움
 - 현재 패널1에서 논의되고 있는 모든 제안서들은 현재 상태에 대해 급격한 변경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합의되기 어려운 제안서들임. 급격한 현상변경 제안의 결과는 결국 (연안개도국들이 매우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) 현재 상태(19-02)의 지속임
 - 비연안개도국들에게 최소한 현재 상태보다 불리해지는 상황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면서, 자원 관리의 결실인 TAC 증가분을 모두 연안개도국들에게 할당하는 점진적인 시나리오만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합의점일 것으로 생각함
 - 상대에게 한번에 너무 많은 양보를 받으려고 하고 있어서 결국 아무 양보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패널1의 상황임
 - 어려운 할당 논의를 하고 있는 패널1에게 유일한 희망은 건전한 자원 관리로 자원상태가 개선되어 CPC들에게 할당할 수 있는 파이(TAC) 총량이 증가하는 것뿐일 것으로 생각됨